



3면

조국 전 장관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겠다"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음 1월 10일) 제344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 근거 마련

전북자치도,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중 내달 준공... 발전전략 수립·에너지 중점산업 육성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전략 수립, 기업·기관 유치, 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입주기간 간 네트워크 지원 등의 기능 등을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이번 조례 제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일 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16일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 새만금 일원 3개 산단 23.9㎢ 면적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받아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첨단화·분산화·디지털화 추세에 부응하는 지역 에너지 신산업 및 혁신기업을 육성해 오고 있다.

육성단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가고자 2022년 1월

에 종합지원센터를 착공했으며, 오는 3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80억·도비 60억·시비 60억)이 투입돼 건축면적 5844㎡ 공간에 지상 5층 규모로 기업·연구기관의 입주 공간, 회의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종합지원센터는 단지 내 연구개발(R&D)·실증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에너지융복합단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중점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의 집적화와 융복합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지원하며, 에너지특화기업을 발굴 및 육성지원하고 에너지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국제교류 등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대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유치활동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조례 시행으로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상반기 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김재훈 기자

목표는 종합 4위... 전북 선수단, 동계체전 출전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종합 4위를 목표로 내걸고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전북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동계체전에 도 내에서는 선수와 임원 등 340명이 전북 체육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

동계체전은 빙상과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아이스클라이밍), 투지 등 8

개 정식 종목이 펼쳐진다.

전북은 전력 분석 결과 50~60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전통 효과 종목인 바이애슬론에서 다수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키와 피겨 등에서도 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대회에 앞서 펼쳐진 사전경기에서 전북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확보한 상태이다.

/뉴스시스

전주매일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3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 학력인정서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 학력인정서를 수여받은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움의 열정으로 이뤄낸 특별한 졸업 | 2023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 학력인정서 수여식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다.

2023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 학력인정서 수여식이 개최된 것이다.

이는 성인 비문해자의 기초 생활 능력 향상과 의사소통 능력, 수리력, 정보화 능력 등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목표로 일일 교육과정을 이수하

면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특히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교육,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사용하기 등을 진행해 학생들의 일상생활 적응력을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이날 수여식에서는

도내 11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초등 82명, 중학 20명 등 총 102명이 학력인정서를 받았다. 이중 100명이 60~80대다.

졸업생 가운데 최고령자는 익산행복학교(여산에서 학습한 88세 임모 씨)다.

한편 2024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도내 14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초등 16개, 중학 11개반 등

총 27개반에서 운영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으로 앞서서 삶의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들이 배움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관영 도지사, 리얼미터 전국광역단체장 평가 3위 수상

깜버리 약재 딛고 긍정평가지수서 60%대로 올라서 기업유치 10조원 돌파·자치도 출범 등 행보 통한 듯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긍정평가지수 조사에서 3개월째 3위를 굳건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깜버리 파행 운영 논란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김 지사에 대한 평가 지수가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기업유치 10조원 돌파 등의 성과에 힘입어 60%대로 오르며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1월 광역자치단체장 긍정평가지수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의 긍정평가는 60.9%로 전월 대비 3.1%p(전월 57.8%) 상승했다.

김 지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79.8%), 2위 이철우 경북지사(63.5%)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김 지사에 대한 도정 운영 평가는 깜버리 사태 이후 8월과 9~10월 50%대 초중반대에 머물다 같은 해 11월부터 서서히 상승했고 드디어 올해 1월 들어 60%대로 올라섰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앞서 지역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KBS 전주방송총국과 전북일보가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60%(매우 잘하고 있다 13%·잘하는 편이다 47%), 부정 32%(잘못하는 편이다 24%·매우 잘못하고 있다 7%)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지난 연말 기업유치액 10조원 돌파,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각종 보고회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도민들이 전북자치도의 활기찬 도정 운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초 깜버리 파행 논란에 이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확산하던 부정적 여론이 김 지사의 적극적인 도정 수행 능력 발휘와 맞물리면서 점점 가라앉는 것 같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시 새롭게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재도약의 발판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